



## 서평 <웨퍼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반 문화의 영성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생의 변곡점이 있다. 이 변곡점에 따라 삶이 활력 있기도 하고, 때론 침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변곡점은 한 사람의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프란시스 웨퍼(이하 웨퍼)는 1960-70년대 있어서 복음주의자들에게 변곡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웨퍼는 좁은 시야에 얽매인 복음주의자들에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었다.

또한 90년대의 한국 복음주의자들에게도 동일하였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문화의 변환점에서 웨퍼를 모르고 시대를 논할 수 없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웨퍼가 20세기 말에 이토록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그의 탄탄한 신학적 기반과 함께 창조적인 변증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1 세기에 들어와서 웨퍼의 저작들이 잘 소개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것도 웨퍼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그의 선지자적 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 반가운 책이 출판되었다. 바로 윌리엄 에드거의 『웨퍼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반 문화의 영성』이다. 윌리엄 에드거는 하버드에서 음악을 전공했으나 라브리를 방문했다가 회심하고 그곳에서 아내도 만났으며 마침내는 웨스터민스터신학교의 변증학 교수가 되었다. 그는 음악도에서 변증학자로 삶이 바뀐 그곳, 라브리에서 웨퍼 및 그 가족과 더불어 5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하였다. 그래서 그의 저서들에는 웨퍼의 향기가 묻어난다.

이 책은 웨퍼에 대한 에드거의 회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3부로 되어 있다. 제1부 '그 사람과 그의 시대'에서는 간략하게 웨퍼의 일대기를 기록하였다. 이전의 전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제2부 '진정한 영성'에서는 웨퍼의 저서 『참된 영성』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제



신동식 총신대학교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문화와 설교연구원 대표와 개혁파신교협의회(RMA) 대표와 기술행정직윤리운동본부장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고양시 원당에 있는 빛과소금 교회 담임목사로 있다. 저서로는 『청년 내가 가야 할 길』(토라), 『30일 여정』(예영커뮤니케이션), 『그리스도인의 정치색깔』, 『기독교개혁이 상실된 세상에서』, 『교회회복-빠름에서 바름으로』(우리시대), 『쉬운성경공부 시리즈 창세기』(다수(프린트))가 있다.

3부에서는 웨퍼와 이디스의 다양한 저작에서 나타나 는 웨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특별히 책으로 나오지 않은 웨퍼의 녹취록을 자료로 삼은 부분이기도 더더욱 풍성하게 웨퍼를 볼 수 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에드거는 프란시스 웨퍼 를 만난 것이 19살 대학교 2학년임을 밝힌다. 에드 거가 웨퍼를 만났을 때 웨퍼의 나이는 52세였다. 이 때부터 에드거는 웨퍼와의 관계를 맺는다.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다. 참된 멘토를 만난 제자의 아름다움 이 물론 담겨있다.

저자는 개인적인 서론에서 라브리의 핵심적인 모습 을 말한다. 라브리가 하는 일은 천국에 이르는 복 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모든 영역에서 성경 적 세계관을 적용하는 삶을 배우는 곳임을 밝힌다.

저자는 라브리에서 보았던 웨퍼의 모습을 회상함 으로 서론을 시작한다. 웨퍼의 인상은 총명하였고, 모든 문제를 일반화 시키는 능력이 있었으며 어떤 질문에도 담대하게 대답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철두철미한 목회자였다. 이 부분은 종종 사람들이 망각하는 부분이다. 저자는 이 부분을 힘주어 말 하고 있다.

이어서 저자는 라브리의 영향력을 말한다. 라브리

의 영향력은 스위스에만 머물지 않았다. 국제적인 단 체가 되었다. 영국, 미국, 네델란드, 인도 그리고 한국 에도 라브리가 세워졌다. 그만큼 웨퍼의 라브리 사역 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1부에서는 라브리로의 여행을 볼 수 있다. 저자는 라브리를 만들었던 웨퍼의 일생을 잠시 언급하고, 그 의 아내 이디스와 만남 그리고 웨퍼의 영향을 준 웨 스테르 민스터 신학교 학자들을 언급한다. 이것은 웨 퍼의 신학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웨퍼는 졸업 후 목회사역과 함께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교회에 대한 우려를 가진다. 웨퍼는 전후 세대의 유럽교회가 황폐하게 될것을 염려하였다. 이러한 웨퍼의 염려는 미국 장로교 해외 선교독립위원회의 파송으로 열매를 맺고 유럽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웨퍼의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이 된다. 유럽 에서 웨퍼는 마틴 로이드 존스와 그의 평생 친구가 된 한스 로크마커등 여러 지도자들을 만났다. 이러한 만남이 웨퍼로 하여금 중요한 생각을 갖게 하였고 마침내 웨퍼는 스위스에 정착하고 라브리 사역을 한 다. 하지만 웨퍼에 있어서 라브리 사역은 순탄하지 않았다.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힘들게 하

었다 그러나 사역의 과정 가운데 영적인 심각한 딜레마를 겪는다. 저자는 그 이유를 설명한다. 쉐퍼가 겪은 영적인 고민에 대한 해답은 결국 라브리 사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저자는 이후 라브리의 위기와 해결 그리고 쉐퍼의 활력적인 사역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본 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진정한 영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장에서 쉐퍼의 생각을 형성하고 있는 근본적인 것들과 참된 영성에 대한 세밀하게 살펴본다. 저자는 쉐퍼에게 있는 근본적인 것 세 가지와 그의 세계관을 형성한 일곱가지를 소개한 후 평가하기를 '개혁적 절충주의자'였다고 말한다. 그것은 쉐퍼가 워낙 창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쉐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재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참된 영성에 대한 심층적 작업으로 이어진다. 참된 영성은 2부 13장과 부록으로 되어있다. 2부는 저자가 생각하는 쉐퍼의 진정한 모습, 쉐퍼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3부는 이 책의 아주 독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과 출판된 책에 없는 내용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장이다. 저자는 라브리가 어떻게 존재하였는지를 기도라는 이야기로 풀어 간다. 쉐퍼의 기도에 관한 네 편 설교는 쉐퍼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고통 즉 약의 문제와 교회 안에서의 삶, 세상에 대한 개입을 다룬다. 특별히 세상에 대한 개입으로서의 문화적 인식, 혁명적 기독교, 부흥과 개혁, 회개, 가정, 사업, 예술, 과학, 정치를 다룬다. 이것이 바로 쉐퍼의 실천적 영성, 현실적 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쉐퍼의 유산에 대하여 다섯 가지를 말한다. 첫째 쉐퍼가 그의 가족을 사랑했다. 둘째, 그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적이었다. 셋째 냉

담한 복음주의자들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문화에 대한 관심과 추구가 단지 적절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이 세상에 속하는 일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넷째 그가 신비로운 능력으로 인간의 은밀한 욕망과 좌절을 파헤치면서 인간의 마음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다는 점이다. 다섯째 그리스도 보혈의 가치였다. 마지막으로 쉐퍼는 참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열정적이었다.

에드가의 쉐퍼 대한 평전은 차가운 머리와 따스한 가슴으로 쓰여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쉐퍼를 모르는 분들에게 매우 좋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에서 쉐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사실 얼마 전 번역된 콜린 듀리에즈의 『프란시스 쉐퍼』평전도 참 인상 깊게 읽었는데 이 책은 더욱 행복하였다. 쉐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쉐퍼의 삶을 매우 균형있게 기록하고 있어서 매우 인상 깊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는 쉐퍼에 대한 생각이 문화 변증학자 정도로만 알려져 있고 그에 대한 논문도 대 부분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쉐퍼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다.

또한 쉐퍼에 대한 정치적 오해로 인하여 SNS를 점령하고 있는 복음주의자들에게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쉐퍼가 미국의 도덕적 다수와 손을 잡을 잡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는 것이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쉐퍼가 밝히고 있듯이 동맹이 아니라 공동참전자였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기독교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관점이라 생각한다.

더구나 이 책의 장점은 저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쉐퍼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보았던 저자는 쉐퍼의 입장에 대하여 때로는 동의하지만 때로는 반대하고, 그리고 때로는 쉐퍼의 말이 모호하다는 표현을 통하여 쉐퍼를 정직하게 바라 볼 수 있게 하였다. 특별히 쉐퍼의 유산 부

분에서 쉐퍼가 가족을 사랑하였음을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은 아마도 그의 아들 프랭크 쉐퍼를 염두하고 하는 말처럼 들린다. 그런데 라브리의 아름다운 모습은 가정의 화목이다. 이것이 라브리의 진정한 열매가 아닌가 생각한다.

저자는 쉐퍼의 신학적 배경을 계속하여 밝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저자의 독특한 면이라 생각한다. 쉐퍼는 철저하게 전제를 강조하였다. 이것은 그의 신학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쉐퍼는 성경의 권위를 붙잡고 있는 역사적 개혁주의자였다. 이렇듯 쉐퍼의 성경 사랑과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그의 준비는 라브리 사역의 튼튼한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도 입으로 끝나지 않고 삶을 보여준 쉐퍼의 신학적 삶이 신학과 삶이 괴리된 우리 시대의 의미 있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말은 개혁주의라고 말하면서 삶에서는 무례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참된 모습이라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쉐퍼는 진정한 개혁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아쉬운 것도 보게 된다. 자치 오해와 빌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것은 쉐퍼가 영적 위기를 겪을 때 미약한 영향력으로 칼 바르트의 약의에 찬 답변이다. 칼바르트는 쉐퍼의 질문에 대하여 범죄학이라고 말하였고 쉐퍼의 태도에 대하여 맹렬하게 비난하였다. 이에 대하여 쉐퍼의 영적 위기가 초래하게 된 원인이라고 본 것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칼바르트로부터 답변에 대하여 쉐퍼가 가진 영향이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좀 더 세밀하게 서술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것은 콜린 듀리에즈의 책에서도 이 부분이 선명하지 않아서 아쉬운 적이 있었는데 이 책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간략하게 쓰여진 것이 아쉽다. 다만 각주에서 쉐퍼의 변하지 않는 자세를 수록한 것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와의 만남을 통하여 쉐퍼의 생각이 변화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친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후예들은 가깝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여타에서 책에서 볼 수 없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와 만남을 수록한 것은 앞으로 두 사람을 연구할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각주를 통해서라도 마틴 로이드 존스와의 관계를 수록하였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쉐퍼의 일대기를 보면 분명하게 사역에 있어서 일관성과 분기점이 있다. 마지막 저서인「위기에 찬 복음주의」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쉐퍼 자신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사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역에서 실천적인 변화는 있었다. 1972년 로우 엔 웨이드 사건을 배경으로 그의 사역의 분기점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그의 전제가 변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쉐퍼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알려졌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또 다른 누군가가 남겨주리라 생각한다.

이 책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오해를 균형 있게 잡아주었고, 선지자요 사상가로서의 쉐퍼를 잘 드러내었다. 그리고 쉐퍼가 열심히 공부하였던 목회자임을 바르게 확인한 것이 참으로 큰 수확이다. 우리 시대의 문제를 미리 알려준 하나님의 사람 쉐퍼의 영성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책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쉐퍼의 영성이 더욱 그리워지는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자면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는 그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저자가 19살에 52살의 쉐퍼를 만났고 평생을 함께하는 멘토가 되었다. 우리에게 다가온 멘토를 만나는 것은 참된 행복이다. 멘토가 또 다른 멘토가 되는 기쁨을 이 책을 통하여 얻는다. 